

일주문



소청심사위원장에 선출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10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조계종 소청심사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효령대상' 사회봉사부문 수상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자승 스님은 10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회 효령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 창립대회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지각 스님(동원사 주지)은 10월 27일 오후 3시 광주 동원사에서 협의회 창립대회를 봉행했다.



대홍사 성보박물관장에
해남 대홍사 교무국장 한복 스님은 10월 18일 대홍사 조선불교연구원 사무처장 겸 대홍사 성보박물관장에 임명됐다.



국립경주박물관장에 임명
국립부여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유물관리부장 등을 역임한 김성구 씨가 10월 20일 국립경주박물관장에 새로 임명됐다.



경향신문 영업총괄부문장
前 경향신문 불자회 회장 강신철 씨(경향신문 불자회 고문)는 10월 22일자로 경향신문 영업총괄부문장(전무)으로 발령났다.

8년만에 다시 회장에 추대

대광맹인불자회 이재달 회장



"대광맹인 불자회가 발족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전 대구경북지역의 맹인불자뿐 아니라 전국의 맹인불자들과 모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포교단체로서 선구적인 결연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10월 22일 대광맹인불자회 8대 회장에 취임한 이재달 회장(46·사진)은 1991년 대광맹인불자회 창립회원이며, 91년부터 96년까지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모든 시각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느라 잠시 물러나 있다가 이제 다시 8대 회장에 추대됐다.

"14년 전 시각장애인들이 법회를 보기 위해 일반인들 틈에서 힘겹게 법당을 찾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대광맹인불자회를 설립하게 됐지요." 설립 당시 장애자 포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회장은 20년 전 25살 때 실명을 했다.

이 회장의 마음은 어느 장애인과는 사뭇 다르다. 갑자기 다가온 장애라는 운명을 오히려 모든 장애인을 위해 승화시켜나갔다. 이 회장은 "150여명의 맹인불자회원들이 현재 40여 평 남짓 공간을 법당과 맹인불자회관으로 함께 쓰다보니 매우 협소하고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내년엔 좀 더 큰 법당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불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복지법인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배지선 기자

행자부장관 '감사장' 받아

조계사 이세용 포교과장



조계사 이세용 포교과장(사진)이 10월 21일 제5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허 장관은 감사장에서 "이세용 포교과장이 지역사회 발전 및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같은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지난 8월 범인 검거 도중 피살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고 심재호 경위(32)와 이재현 경장(27)의 영정을 조계사에 모시고 영가천도를 위한 49재를 봉행하는 등 평소 지역민들의 안위와 편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은경 기자

서울대 심재룡 교수 타계

10월 20일, '지불연구' 등 남겨



불교철학연구에 매진해왔던 서울대 철학과 심재룡 교수(사진)가 10월 20일 지병으로 타계했다. 향년 62세. 심 교수는 경향신문 기자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학교 동양학과 한국학 초빙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버클리 캠퍼스 동양학과 객원교수를 거쳐 1980년부터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고인은 특히 보조 지불 스님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지불연구>를 펴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국 선불교의 철학적 기초> <중국불교철학사> <동양의 지혜와 대학 버클리 캠퍼스 동양학과 객원교수를 거쳐 1980년부터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유철주 기자

"대중불교결사대회 열어 재도약 할 것"

진흥원 홍승희 이사장, 불교디지털사전사업 등 계획 밝혀

"내년에 흥원 창립 30년을 맞는 만큼 대중불교결사대회를 개최해 흥원원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홍승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사진)은 10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월 8일 열린 이사회에서 창립멤버로서 책임감을 느껴 자청해 이사장에 맡았다"며 "1년 정도 흥원의 확고한 기틀을 잡은 뒤 후임 이사장에게 넘겨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젊은 세대들과 호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 빈도가 높은 7만 단어를 선정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게재해 온라인 등을 통해 서비스할 불교디지털사전을 진행 중"이라는 홍 이사장은 "진흥원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



갈 수 있도록 장·단기 불교포교 및 불교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홍 이사장은 "양주에 건립을 추진했던 불교문화체험관 공사는 시기를 갖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지난해 흥원원이 발간한 한영불교사전을 전국의 호텔에 보급

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해설서도 지속적으로 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에서 흥원원 스님이사 파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과 관련해 홍 이사장은 "진흥원 창립당시 총무원장 스님이 이사회를 수행했다. 이후 실효성이 없어 불교진흥원은 재가자 위주로 운영하고, 불교방송의 경우 스님이사 파견을 이루는 것으로 정리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 제도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신임 홍 이사장은 산업은행 총재, 재무부장관을 거쳐 1975년부터 대한불교진흥원 감사 및 이사, 1990년 불교방송 이사, 현재 성곡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불교회관 건립에 매진

화순시암련 새회장 보화 스님

"화순지역 불자들의 숙원 사업인 불교회관건립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4대 화순군 사암연합회장으로 추대된 화순 개천사 주지 보화 스님(사진)은 "불교중앙대학교 유아포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도심 속의 열린 공간인 회관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지난 여름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화순지역에 타종교 단체들의 자원봉사는 줄을 이었으나 불교계는 봉사단체가 없어 부끄러웠다"며 "중생과 함께 살아있는 불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사암련 산하에 불교봉사단체를 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남대 화순병원 등 현장에서 불교자세를 실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암련이 중심이 되어 지역 화합과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보화 스님은 송광사 현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5년 전 개천사 주지로 부임해 선원건립과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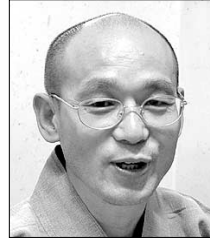
위빠사나 기초과정 개설

광주 마하연 선원 목우 스님

"수행도 습관입니다. 수행관이 몸에 습득되기까지는 매일 한 시간씩 3-4개월의 기본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근 위빠사나 명상수행에 참선요가를 결집한 '위빠사나 선수행 기초수행자' 과정을 개설한 광주 마하연선원 주지 목우 스님(사진)은 "위빠사나 수행은 재가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선방에서 내려오는 참선요가를 결집하여 수행관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위빠사나 명상수행은 부처님이 몸소 실천하고 가르친 불교 수행법의 원형이다"며 "삼독심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제어시켜 나가다보면 수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신체 운동만이 아닌 내부 에너지와 내면비전을 자극하고 활성화 시켜 감정과 마음까지 조화롭게 이르게 하는 참선요가를 함께하면 수행에 더욱 힘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마하연선원의 위빠사나 선수행 기초수행자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매주 2회(월, 수) 강의가 진행된다. (062)676-2840



이준엽 기자

김충현 은관·송춘희 씨 화관

문화예술 발전공로 문화훈장 받아



김충현 씨

송춘희 씨

문화관광부는 2004년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 대한 '문화훈장' 수상자로 세계의 원로 일조 김충현 씨(82)와 가수 송춘희 씨(68) 등을 선정했다.

김충현 씨는 10월 20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글 고체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문화훈장'을 서훈했다. 1921년 어릴 때부터 사서감경을 읽으며 자연스레 서법을 익힌 그는 중동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38년 서단에 등장했다.

김충현 씨는 스님들과의 인연도 깊어 많은 사람의 법당 현판과 주련에 글씨를 남겼다. '노래하는 포교사' 송춘희 씨도 이날 화관문화훈장을 서훈했다. 송 씨는 서인의 애환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여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로 국민정서 함양 및 가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훈장을 받게 됐다.

송 씨는 1966년 발표한 '수덕사의 여승'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38년 서단에 등장했다.

생활하던 중 광우 스님(前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을 만나면서부터 군 위문공연, 재소자 교화,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90년 '백련장학회'를 설립해 소년소녀가장의 학비를 지원해왔다. 송 씨는 "부처님 가피로 그동안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노래와 봉사로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copy@buddhapia.com

가장 신뢰받는 종교지도자 "법정 스님"

국내 최고 경영자·네티즌 투표서... 김수환 추기경 2위



최고 경영자들과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종교인 리더 1위에 올랐다.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의 저자인 법정 스님(서울 김상사·사진)이 김수환 추기경을 제치고 국내 최고 경영자들과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종교인 리더 1위에 올랐다.

한국리더십센터가 국내 최고경영자(CEO) 포럼 회원인 각 부문 CEO와 기업 임직원 100명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리더'를 선정한 뒤 상위에 오른 이들을 대상으로 네티즌 1762명으로부터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종교계에서는 법정 스님(34%)이 김수환 추기경(26%)을 제치고 신뢰받는 리더 1위로 뽑혔다. 3위는 유한홍 목사(14%), 4위는 하용조 목사(7%), 5위는 김성수 추기경(3%)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인 법정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 종교지도자들이 10월 18일 종교예술제 개막식에 앞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제8회 종교예술제 개막...미술·영화·음악 부문

제 8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미술제를 시작으로 개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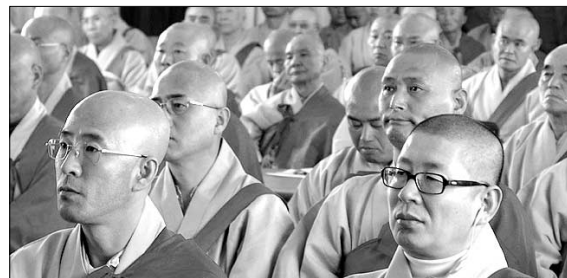
10월 18일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이장인 법정 스님을 비롯해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이해정

원불교 교정원장, 이철기 천도교 교령, 최근덕 성균관장, 한양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미술제, 영화제, 음악제 등 3개 행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태고종 승려 합동연수교육



태고종은 전국 승려 합동연수교육을 10월 18-20일 이전 산림연수원에서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연수는 교육원장 수암 스님의 '태고종의 정체성과 나아갈 길', 이병래 교수의 '새로운 승가상' 등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태고종은 전국 승려 합동연수교육을 10월 18-20일 이전 산림연수원에서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연수는 교육원장 수암 스님의 '태고종의 정체성과 나아갈 길', 이병래 교수의 '새로운 승가상' 등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효봉대중사 38주기 추모법회 봉행



승보총찰 송광사(주지 영조)는 10월 15일 대웅전에서 '효봉대중사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효봉 스님 임제 38주기를 맞아 열린 이날 법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사부대중 500여 명이 효봉 영각에서 탑돌이를 하며 효봉 스님의 유지를 기렸다.

승보총찰 송광사(주지 영조)는 10월 15일 대웅전에서 '효봉대중사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효봉 스님 임제 38주기를 맞아 열린 이날 법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사부대중 500여 명이 효봉 영각에서 탑돌이를 하며 효봉 스님의 유지를 기렸다.

부산 사하불교련 몽골 방문



부산사하불교연합회는 불교 교류를 위해 7박 8일 일정으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 10월 11일 귀국했다. 연합회 소속 사찰 주지 및 신도 3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나란 차츰달 몽골 총 추리와 합담하고 국민총 지원금 500달러를 전달했다.

부산사하불교연합회는 불교 교류를 위해 7박 8일 일정으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 10월 11일 귀국했다. 연합회 소속 사찰 주지 및 신도 3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나란 차츰달 몽골 총 추리와 합담하고 국민총 지원금 500달러를 전달했다.

광주 종교인들 무각사서 평화예술제



광주지역 6대 종교인들이 모인 광주종교인 평화회의(KCRP)는 10월 19일 광주 무각사 경내에서 '제5회 광주종교인 평화예술제'를 개최하고 화합한마당 대동제를 펼쳤다. 이날 부산대표 정각 스님이 부산천도교여성합창단과 함께 참석했다.

광주지역 6대 종교인들이 모인 광주종교인 평화회의(KCRP)는 10월 19일 광주 무각사 경내에서 '제5회 광주종교인 평화예술제'를 개최하고 화합한마당 대동제를 펼쳤다. 이날 부산대표 정각 스님이 부산천도교여성합창단과 함께 참석했다.